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7호 【루계 제25676호】 주체106(2017)년 6월 1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6(1997)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의 과학성, 정당성, 생활력과 혁명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기념비적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원장 박사, 부교수 김광일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력사적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사회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 승리적전진을 위한 활로를 열어놓은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곧 자주성이라는것을 철의 론리로 명시하고 그것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기념비적문헌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적극 살려나가는 주체성과 민족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자 곧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가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자주의 혁명로선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길에서 승리만을 떨칠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길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박명남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위업의 자주적본성과 력사적, 현실적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며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는 사회주의위업의 본성과 력사적, 현실적조건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위업을 민족자주위업과 하나로 결합시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며 혁명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여 자기의 불패의 위력을 발휘해나가자면 사회주의위업을 민족자주위업과 하나로 결합시킬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혁명적원칙인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고수의 원칙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민족적특성에 맞게 올바로 전진시키면서 세계적범위에서 참다운 국제적단결과 련대성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윤우는 이렇게 론증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자주로 존엄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데서 자기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성을 견지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 나라와 민족, 인민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켜 풀어나갔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력사에 류례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뭉개버리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성고수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온 사회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민족문화가 활짝 꽃펴나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우수성이 세계만방에 더욱 떨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민족성을 견지하여온 우리 당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민족적위업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탁월한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문제연구원 처장 부교수 신철남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외세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에 의하여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여지없이 파탄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이 세계도처에서 규탄배격당하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이야말로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자주정치와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민족문화를 살리기 위한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이 분쇄되고있다.

력사적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나 환상을 가진 나라들은 례외없이 《세계화》의 전략에 말려들어 심각한 사회정치적혼란과 파국적인 경제적침체를 초래하고 민족성을 잃은 잡탕문화가 범람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절감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단결과 협조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인민경제대학 교원 박사 홍광철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동력으로 제시하신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는데 주체성을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력, 비상한 창조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국보보존사업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은부식방지제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 나라의 국보보존사업에서 의의가 큰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에 기초하여 국가선물관을 비롯한 여러 선물관들에 보존되여있는 온으로 된 선물들을 영구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은부식방지제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한것이다.

성능높은 은부식방지제가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선물들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떨치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선도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며 태양민족의 만년재보인 국가선물관 등에 보존되여있는 선물들을 영구보존하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사적물 그리고 선물들과 같은 나라의 국보들을 보존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퇴색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것이며 그러자면 그 보존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는 국가선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선물관들에 보존되여있는 수많은 선물들가운데는 온으로 된 선물들도 많다.

온으로 된 선물의 부식방지에서 기본은 류화수소를 비롯한 부식성물질이 들어있는 공기속에서 온표면의 색갈이 변하거나 광택성을 잃는것을 막고 은백색의 고유한 색갈과 광학적특성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도록 표면을 보호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과학교육사업을 한다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 숭고한 자각을 안고 화학부의 교육자들은 오래전부터 나라의 국보를 영구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은부식방지제를 우리 식으로 개발할 연구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당조직의 지도와 국가선물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강좌장 박사 부교수 최영일, 교원들인 부교수 석사 김옥순, 석사 리순영동무들은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속에서도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그마한 손상도 없이 보존관리할수 있는 연구결과를 거어이 얻어내야 한다는 과학적신념을 굳게 가다듬으면서 선행문헌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고 긴장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질들을 기본원료로 하여 높은 성능을 가진 부식억제제의 새로운 합성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이 시약으로 온제품을 표면처리하여 부식방지률을 99.5%이상 보장할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온제품의 표면광택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능높은 은부식방지제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후손만대에 물려줄 나라의 국보보존관리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룡남산의 교육자들의 연구사업을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나선 국가선물관 책임일군들과 선물보존기술소 소장 리주화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 종업원들의 창조적협조에 의하여 수천점의 선물들에 대한 은부식방지제도입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그 효과성도 실천적으로 뚜렷이 확증되였다.

국가선물관을 비롯한 여러 선물관들의 도입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은부식방지제는 부식에 의한 은표면의 색상변화를 방지하고 은백색의 고유한 색갈과 광학적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성능이 매우 높을뿐아니라 표면처리과정에 물을 용매로 리용하므로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조작도 비교적 간단하며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좋다고 한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는 해당 부문과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새로운 은부식방지기술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성천강가방공장 훌륭히 완공

함경남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생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성천강가방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여러개의 덩지큰 건물들로 이루어진 성천강가방공장은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에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였으며 문화후생시설도 그윽하게 갖추어져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가방공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과 설계가들, 시공일군들, 자재보장성원들, 돌격대원들을 망라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가방공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함흥시안의 각 구역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으며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함흥시안의 각 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짧은 기간에 덩지가 큰 3층짜리 생산건물과 사무실청사, 2층으로 된 후생건물 등을 일떠세우고 내부공사와 도로포장공사, 주변정리와 나무심기를 립체적으로 벌려야 하는 가방공장건설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가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열의밑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골조공사를 단숨에 해제낀 기세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를 계속 내밀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내부미장, 난방공사, 상하수도망공사, 바닥인조석미장, 타일붙이기 등을 중단없이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생산건물공사를 맡은 성천강구역대대, 사무실청사공사를 맡은 동흥산구역대대, 후생건물공사를 맡은 사포구역대대, 구내포장공사를 맡은 회상구역대대, 장식울타리공사와 록지조성을 맡은 흥남구역, 해안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도지방공업관리국에서는 재봉기와 재단기를 비롯한 설비와 비품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공장의 물질적토대를 갖추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방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지금 성천강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이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경철

년간 수산물생산계획 앞당겨 수행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펫펫이 들어서기 위해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 전형단위의 영예를 높이 떨치며 6월 10일까지 높이 세운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105%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남포시당위원회와 와우도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물고기잡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어로공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사업소의 어로선단 어로공들은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배들의 대수리를 불과 20여일동안에 전부 끝낸 기세로 결사의 각오를 안고 두리운 얼음장을 헤치며 지난해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집중어로전에 진입하였다.

2어로선단의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전투성과를 확대하며 위훈창조의 선두에서 기세좋게 내달렸다.

특히 《황금해》계렬의 만능어선인 05-9002호의 어로공들은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불리한 날씨와 어황조건을 이겨내면서 절사관철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5월 중순에 제일먼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로선단들의 선장들과 어로공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 서라도 기어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비상한 각오를 안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년간 수산물생산목표를 돌파하고 승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물고기잡이전투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배무이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또 한척의 《황금해》계렬의 만능어선을 무어 바다에 띄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무작업반과 배무이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배무이전투에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1.4분기간에 만능어선을 훌륭하게 무어 바다에 진출시킴으로써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적인 어로지휘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를 통한 과학기술학습과 경험교환, 새 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속에 건설작업반원들도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건설 및 보수공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 종업원들은 시대의 전형단위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며 올해에 기어이 년간계획을 두배이상 넘쳐 수행할 신심드높이 물고기잡이전투와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습니다. 김 정 일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힘의 원천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계승되는 혁명은 승승장구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속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해주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풍부한 투쟁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고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헤쳐오는 과정에 마련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무한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세계혁명사에는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 하여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력사의 이끼속에 파묻혀버린 사실들이 적지 않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피어린 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지 못했기때문이다.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명맥으로, 필승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도약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완벽하게 꾸려진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다그쳐지고 제기되는 혁명과업이 방대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혁명전통교양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는 휘황찬란하다는것이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며 비약의 원동력이다. 일심단결만 있으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고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였다. 백두에서 억세게 뿌리내리고 굳세여진 단결이 혁명의 강위력한 무기로 되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조국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과 대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물리치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천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의 커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대격전이였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킨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꽃꽃이 이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자강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며 우리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자강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해온것이 우리 혁명이다.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공고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적수공권의 처지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으며 망치와 줄칼, 풍구밖에 없었던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전통을 창조하였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연길폭탄정신은 1950년대의 군자리혁명정신과 천리마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우리 조국이 세기를 비약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혁명의 길에서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여나지도 못하였을것이다.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력자강의 거창한 창조전이다. 자력갱생의 궤도우에서 우리 조국이 우주강국,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행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완공된 려명거리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투렷한 증시이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찬탈하고 생존권까지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민의 리상거리를 일떠세웠다.

력사와 현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일관된 령도예술의 교과서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혁명의 진리이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해나가는데 난관극복의 묘술이 있고 기적창조의 담보가 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부닥치는 정황에 능동적으로, 령활하게 대처하는 방법,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사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법,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방법들이 폭넓게 담겨져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창조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항일유격대식군중공작방법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며 군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해나가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이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은것도, 1970년대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을수 있은것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빛나게 구현해온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부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충복,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이다.

오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단위들에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닌 참된 일군들이 있으며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혁명전통은 결코 저절로 계승되지 않는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필승의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해나가야 할것이다.

조 학 철

억년드놀지 않을 주체의 혈통

◇ 당선전일군들과 전국의 녀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6월에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는 답사행군대오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 이 나라 천만군민이 준엄한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걷고 또 걷는것인가.

그것은 백두산을 안고 사는것이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삶의 요구이고 지향이기때문이다. 하기에 평범한 로동자시인도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지 않았던가.

…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만일 한점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폈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필 자리 찾으리
…

그렇다. 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녀야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다.

◇ 주체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주체의 혈통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있기에 조선혁명이 승승장구하는것입니다.》

혈통이 위대하고 그 계승이 확고한 혁명은 승승장구한다. 주체의 혈통은 우리 혁명이 장구한 로정에서 추호의 변색과 화절을 모르고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이 위대한 혈통을 굳건히 이어왔기에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승리만을 떨쳐올수 있었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행주국으로 위용떨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천만년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교체되여도 우리에게는 주체의 길외에 그 어떤 다른 길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주체의 혈통이야말로 억년드놀지 않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가리라 백두산으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체침이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이며 그 어떤 쇠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얻고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꼿꼿이 이어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적극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전통, 주체의 혈통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혁명가요인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며 백두의 행군길은 꼿꼿이 이어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간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바치신 —왕재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일군들이 해설자, 선전자가 되여 대중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정력적인 령도로 무적의 군력을 억척으로 다지시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절사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위대성선전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한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더 잘지을 마음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방 대 삼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

지금 우리 당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최우선중대사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시기이며 주체의 혁명사적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혁명사적은 혁명전통을 체현하고있는 력사적증거물이며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방법의 하나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이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말해줄 혁명의 1세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진들로 자라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무준하고 실속있게 진행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사적에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활동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혁명사적물들은 어버이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생동한 자료와 실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최근년간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청년운동사적관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기점들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온 나라가 말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고있으며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관으로 훌륭히 꾸려진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은 규모에 있어서나 전시내용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혁명박물관이라고,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이 응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초기지이며 혁명대학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마련된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기 위한 수많은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이 보존전시되여있다. 참관자들은 사적물들과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드센 담력과 배짱,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출위인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백절불굴의 신념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자면 후대들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는 매우 중요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3월 몸소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시여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직접 걸어서 답사하면서 백두산눈보라맛도 보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무릎이 넘도록 눈이 쌓인 곳에서 제손으로 천막도 치고 밥도 해먹고 우등불을 피우면서 숙영생활도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억년드놀지 않을 신념의 기둥을 세우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마두산혁명전적지, 유평혁명사적지, 청천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로의 답사와 참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학생들은 생동한 자료와 유물들을 직접 보면서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신념, 혁명승리를 확신하며 락천적으로 생활한 그들의 투쟁기풍에 대하여 잘 알게 된다.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일떠섰는가 하는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체험을 통하여 깊이 느낄수 있게 한다는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의 의의가 있는것이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불변의 진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려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것은 바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참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의 혁명사적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할 국보중의 국보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명 주 혁

혁명신념을 굳게 새겨준 답사행군

합경북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당위원회에서

신념교양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함경북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당위원회에서는 답사를 통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항일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시기 관리국에서는 혁명전적지답사를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일부 일군들이 생산과 건설이 긴장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두해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신 소식은 당위원회일군들을 비상히 각성시켰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던 때에 전투비행사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신 절세위인의 승고한 뜻을 새길수록 그들의 가슴은 달아올랐다.

당위원장 리용익동무를 비롯한 당일군들은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답사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떨쳐나섰다. 당위원회에서는 먼저 청진시에서 수백리 떨어진 회령시의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였다. 일군들에게 답사는 시간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을 세워주자는 의도도 있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초급일군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답사의 중요성과 의의는 물론 회령시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답사를 조직하는 일군들이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답사로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관리국일군들은 물론 산하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 200여명으로 무어진 답사행군대오가 답사길에 올랐다.

당위원회는 답사행군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연구발표모임과 혁명가요보급 등을 진행하여 신념교양의 실효를 높였다.

회령시의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는 일군들로 하여금 옳은 관점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념을 심어줄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송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긴장하게 벌리는 속에서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두차례 조직하였다.

방대한 건설과제를 맡아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떠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데 기초하여 답사가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웠다. 답사를 통하여 다른 도, 시, 군들에 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특별한 경우에만 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릇된 관점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

김정철, 림경호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산하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답사를 목적지향성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가 매월 사업계획에 반영되여 집행되게 되였다.

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관리국에서는 지난 3월초 청진시내에서 100여리 떨어진 판장림시비밀근거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무릎치는 눈을 헤치며 울창한 밀림속을 행군해가는 과정에 답사자들은 조국해방사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찍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신념으로 항일혈전사를 빛내인 투사들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안았다. 사령부천막자리주변에서 진행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과 행군도중에 진행한 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 등은 답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답사는 로력과 시간이 많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며 한두번 하고 끝나는 사업도 아니다. 당조직들이 옳은 관점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 때 답사를 통한 신념교양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는 고산과수종합농장

618건설돌격대에서

전투정황에 맞는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통이 큰 일판을 펼치고있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받들고 지난 몇달동안 절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 고산군민발전소언제건설공사를 끝낸 이곳 일군들과 대원들이 발전설비조립전투를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살림집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100여동의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언제건설용정발작전을 과학적으로 하여 림제전, 련속공격전을 담보한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무조건성과 가능성

추운 겨울에 지대정리와 1차가물막이를 하고 언제건설을 한 첫 단계 공사도 철치 않았지만 2차가물막이를 한 후의 공사는 더욱 긴장하게 진행해야 하였다. 이 공사를 완공하면서 다른 대상건설을 다같이 내밀어야 하기때문이였다.

종전의 로력과 수단으로 거창한 규모의 련속공격전을 벌려야 하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현장지휘부 책임일군인 강성일동무가 먼저 신들메를 든든히 조이고나서며 지력있게 한 말이 이들을 분발시키였다.

무조건 해내야 한다!

무조건성의 신념이 확고할 때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뚫고나갈 가능성과 묘술을 찾게 된다.

일군들이 중기계집중리용에 의한 막돌과 자갈운반방도를 찾은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련속공격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는 2차가물막이구간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말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황해북도려단에 막돌과 자갈을 제때에 보장하는데 있었다.

군민협동작전으로 발전소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전투장으로 달려나온데 이어 힘차게 떨쳐나선 고산군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만㎥의 막돌과 자갈이 꼿꼿에 확보되였다.

그것을 빨리 실어들여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 막돌과 자갈을 다 쌓아놓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공사추진정형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반해야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은 돌격대의 모든 중기계들을 필요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기로 하였다. 얼핏 보건대 이것은 단순히 찾을수 있는 방도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다른 려단들에서도 말은 대상건설장에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데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을 전적으로 여기에 동원하는 경우 그 건설을 추진시키는데 지장을 줄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효률적인 중기계집중리용대책을 세우게 되였다. 이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 3개 려단에서 막돌과 자갈이 언제 얼마나 각각 필요한가를 료해하였다.

이것을 확정한데 기초하여 순차를 면밀히 정하고 운반조직을 하였다. 그 려단들에서 이 막돌과 자갈을 리용하는 기간 중기계들은 본래 소속단위들의 자재운반을 하는 방법으로 언제건설과 다른 대상건설도 다같이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기존공법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발전설비가 들어오기 전에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선행시킨것도 일군들이 만리마의 속도를 멈춤이 없이 련속공격전을 보장하기 위해 펼친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의 하나였다.

중시한 두가지 문제

일군들은 언제건설과정에 대중의 정신력발동문제를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겨울부터 봄까지 몇달동안의 철야전투과정에 대원들속에서는 어지간히 지친 기색들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며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언제건설을 빨리 완공하고 그 기세로 다른 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련속공격전을 벌리자면 대중을 끊임없는 비약창조에로 불러일으켜야 하였다.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서 그 방도를 찾았다.

정신력발동을 위한 이들의 사업방법이 주목을 끈다.

이들은 려단별기동예술선동대 집중경제선동과 노래 및 군중무용경연을 전에 없이 크게 조직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뜻깊은 명절같은 계기들에 기동예술선동대경연 등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문단위만이 아니라 각 려단 일군들과 대원모두를 참가시키는 큰 규모의 경연을 전투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를 통해 돌격대 전체 집단이 혁명적락관주의로 흥성이고 전투장들에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경연에 대한 판정은 공연종목마다에 공사과제와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악기와 노래선정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진행하였다.

직관선동과 배합하여 진행한 이 경연은 언제건설장에 활력을 더욱 북돋아주고 단위들사이의 승벽심이 집단의 강한 전투력으로 승화되게 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도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의 하나였다.

일군들은 전투총화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려단들에서의 기술혁신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고 비록 작은 싹이라도 계발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주었다. 좋은 안이 나왔을 때에는 분초를 다투는 전투장의 실정에 맞게 빨리 일반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즉시 조직하였다. 함경남도려단의 한 일군이 수천m의 철근을 절약할수 있는 새 휘틀고정방법을 창안도입한것도, 평안남도려단에서 종전처럼 4대가 아니라 2대의 전양설비로 4대의 스키프를 가동시킬 방도를 찾아내여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며 공사속도를 높이게 된것도 이런 사업의 결과였다.

과학적인 작전으로 2년이상 해야 할 발전소건설을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 새 대상건설을 위한 련속공격전을 담보한 이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한것이다.

자력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린 보람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618건설돌격대의 일판이 크게 펼쳐지는데 따라 자력갱생기지에서의 강재생산을 맡은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앞에 더 높은 증산과제가 제기되였다. 종전에는 발전소건설장 하나였지만 이제는 100여동의 대상건설장에 강재를 보장해야 하였다.

같은 로력과 수단으로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해야 하는 무거운 과업을 놓고 이곳 일군들과 대원들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부터 높이였다. 과연 우리 힘과 기술로 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겠는가.

대대정치지도원 리덕길동무는 이 물음앞에 자신을 먼저 내세웠다. 백두산에서 철령아래까지 연길폭탄정신으로 집어온 로정은 자강력으로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진리로 확증해주고있었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그는 단천지구로 떠났다. 사연이 있는 걸음이였다.

강재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우선 쇠물생산을 높여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사색하던 그는 파철을 녹이는 중주파유도로를 자주 보수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이 로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은 쇠물생산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질이 낮은 내화물재료를 리용하다보니 로의 가동을 자주 멈추어야 하였던것이다.

이런 원인을 찾은 즉시 길을 떠난 정치지도원은 해당 기업소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질좋은 내화물재료를 해결하였다. 결과 로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제는 로에 파철을 제때에 넣는것이 급선무로 나섰다. 그런데 파철을 로의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용접봉이 걸렸다. 하루에 소비하는 용접봉이 수십kg, 한달이면 1t이상이 필요되였다. 이것을 그전처럼 다른데서 해결해오는 방법으로는 결코 강재증산을 할수 없었다.

정치지도원은 할수 없다는 견해를 단호히 부정해나섰다.

자강력이란 곧 신념의 산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당이 안겨준 이 만능의 무기를 변함없이 틀어쥐고 자기 힘과 기술, 자원에 철저히 의거해나갈 때 반드시 성공한다.

그는 이 신념을 안고 대원들과 함께 피타게 사색하며 실패에도 동요없이 시험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용접봉피복재료를 혼한 지방원료로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더욱 신심이 생긴 이들은 용접봉의 속심부터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형타를 만들어 필요한 철판을 생산하였다.

어느 단위에 쓰지 않는 프레스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이들은 육중한 그 설비를 가져다가 절단기로 개조하였다. 이것으로 철판을 자르고 남은 자투리는 붓을 만들게 되니 그야말로 일거량득이였다.

피복한 용접봉을 새로 만든 로에서 건조시켜 완성한것은 그 질이 전문단위들에서 생산한것에 못지 않았다.

대대에서는 용접봉을 자체로 생산하는 조건에 맞게 현장에서 기술전습을 조직하여 용접공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비롯한 다른 대책들을 따라세웠다. 그리하여 하루쇠물생산을 이전의 근 2배로 늘이게 되였다.

큰 문제가 풀리였지만 한숨돌릴 사이가 없었다. 쇠물생산이 늘어난것만큼 환강을 뽑는 압연기의 가동률을 더 높여야 하는데 압연롤이 변형되여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것이다.

질보장이자 강재증산이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나섰던 그때에도 일군들은 천여리 먼길을 오가면서 강질이 굳은 압연롤을 끝끝내 해결하였다.

이처럼 자력갱생기지를 더욱 튼튼히 무린 결과 지금 대대에서 하루에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게 되였다.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황해남도려단에서

고산군민발전소언제건설에서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대원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정신은 지금도 618건설돌격대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원동력은 대중의 정신력입니다.》

려단은 언제건설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맡았다. 한달동안에 여러개의 위수구를 형성하면서 언제쌓기를 해야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두개 려단이 해야 할 작업량이지만 작업구간이 제한되다보니 려단의 힘으로 해내야 하였다.

실로 무거운 과업이였지만 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론의조차 되지 않았다.

고산군민발전소건설은 당이 준 과업이다. 무조건 해내야 한다.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대원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려단에서는 다른 단위들에 비해 하루언제콩크리트치기를 2배이상 할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행을 위해 전체 려단이 철야전투에 진입하였다.

여기서 제일 힘든것은 콩크리트혼합물운반작업이였다. 작업공간이 좁아 권양기를 설치할수 없는 조건에서 맞들이와 질통으로 혼합물을 운반하여 구조물을 형성하며 한치한치 언제를 쌓아야 하였다.

언제가 점차 솟아오를수록 운반거리는 멀어지고 그만큼 힘이 더 들었다. 일군들과 대원들의 입술이 터갈라지고 맞들이를 잡았던 손을 제대로 펼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 맞들이를 다시 잡고 혼합물을 담을 때면 이들의 입에서는 한삽 더라는 말이 버릇처럼 튀여나왔다.

우리는 단순한 언제가 아니라 당중앙결사옹위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이 길에서 쓰러질 권리조차 없다는 신념으로 길은 밤사정없이 꼴려드는 졸음을 물리치며 혼합물운반길을 뛰여다니였다.

대원들과 함께 이 길을 달리던 그때 일군들은 다른 려단들도 이렇게 내달리고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려단이 다른데 비해 더 방대한 과업을 맡은것만큼 먼저 만리마를 타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혁신적안목으로 방도를 찾았다.

콩크리트혼합물을 이기는데 절실히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보자.

처음에 려단에서는 발동발전기에 의한 양수기가동으로 하천물을 퍼올린 다음 자동차로 운반하여 리용하였다.

연유와 시간소비가 많은 이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려단의 한 일군은 땀을 려 산발을 타면서 끝내 자연수를 찾았다. 이것을 리용함으로써 그처럼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려단은 힘을 축적하면서 언제건설속도를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혼석채취장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을 말고나가 흙물은 자갈은 물에 씻어 쓰게 하고 진동다짐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처럼 려단은 가장 어려운 과업을 맡아 한달동안의 절사전을 벌려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618건설돌격대가 당이 정해준 시간에 언제건설을 완공할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려단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군들과 대원들은 랑개를 늦추지 않고 언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지금 새 대상건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창조의 열매 주렁진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면모가 나날이 새로와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선 618건설돌격대원들이 창조와 위훈의 자욱을 새기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지평이 펼쳐나고있다.

새로 생겨난 과수원

수수천년 한적하게 흐르던 남대천에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하천주변에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산과 돌, 흙, 물뿐이던 이 지대가 미끈하게 정리되여 새 도로가 생기고 하천에는 멋진 콩크리트다리가 건설되였다.

기술에 규모있게 물을 쌓은 하천의 새 모습, 수만㎥의 면적이 잔디 및 지피식물로 뒤덮인 풍치도 멋있지만 발전소건설장주변에 생겨난 수십정보의 과수원은 볼수록 장관이다.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지대정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긴 일군들과 대원들 그리고 고산군인민들은 새 과수원을 꾸려 철령아래 고산땅의 풍치를 더욱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한개의 분장마을 개건

고산과수종합농장 성북분장 마을이 개건되고있다.

이 땅에 깃들어있는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일군들과 대원들은 올해 건설하기로 한 100여동의 살림집중에서 근 80동을 일떠세우는 총정의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경영관리용건물과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를 비롯한 10동의 공공건물들을 건설하여 마을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8동의 과학기술보급실

사회주의선경이 나날이 더욱 이채롭게 펼쳐지는 고산땅에 8동의 과학기술보급실이 새로 건설되였다.

지난해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나가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매 분장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돌격대에서는 올해 10개의 과학기술보급거점을 꾸릴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군들과 대원들은 과학과수를 함에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처럼 어려운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면서 과학기술보급거점을 꾸리는 일을 다른 대상건설에 앞세웠다. 그리하여 면저 8동을 여러 분장들에 건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과일생산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늘어나는 축산기지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당의 뜻이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과 대원들은 지난 기간 여러개의 능력이 큰 돼지목장을 일떠세운데 이어 올해 5개를 더 건설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건설이 완공되면 모든 과수분장들에 돼지목장이 갖추어지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물거름을 과수밭에 내여 과일생산을 늘인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벅차며 일군들과 대원들은 건설속도를 날로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51호 주체106(2017)년 6월 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과학지식수준을 높여 말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제공장
평안남도정보통신국 시내직장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리과대학 조종과학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위생전문예방원
내각사무국 재정경리부 중심편의봉사관리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접지직장
대흥룡전기술료류소 차수리직장
봉화비누공장
락원봉화피복공장
애국모범피복공장 1직장
양강도국제호텔 경리과
평양기포부제공장 기포직장

26호모범기대영예상

평양기계종합대학 재료공학부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정보보안공학부
평양목재공장 건구직장
락랑농기구공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운수직장
해주려관
은정차공급소
남신은하피복공장
강서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52호 주체106(2017)년 6월 9일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김일성종합대학 에네르기과학부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
애국모범피복공장
평양면옥
선교각
평양외국어대학 제직일군 및 류학생강습소
중구역식료품수매상점
은정구역종합식당
대동군 원천협동농장 제1작업반
대동군 마산협동농장 제10작업반
증산군사회급양관리소
평안남도고급축산사업소
창성은덕원
염주만병술공장
운전군체신소
운전고치생산사업소 송학작업반
안악군 엄곶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안악군 엄곶협동농장 제5작업반
해주시 영광려관
시중장포장
남포항 지게차대
김책시 호룡협동농장 축산작업반
김책시 동흥협동농장 제2작업반
포항구역청소년체육학교
라남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라남은하피복공장
평대역
평양기관차대 대전기관차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은을 내는 심층시비기

배천군 홍현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당면한 영농전투로 끓어번지고있는 배천군 홍현협동농장에 가면 새로 만든 심층시비기들을 볼수 있다.

이 심층시비기는 품이 적게 들면서 제작하기가 간단하여 어디서나 받아들일수 있다.

올해 모내기철에 제14작업반을 비롯한 작업반들에서 이 기계를 리용해보았는데 쓸모가 있어 호평을 받고있다.

우선 이 기계는 비료를 그대로가 아니라 물에 풀어서 주게 되여있어 종전에 쓰던 기계보다 고장이 거의 없고 비료의 효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농작물비배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다. 또한 건장한 로력문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

현재 새로운 심층시비기를 리용한 포전에서의 논벼생육상태는 다른 포전보다 현저히 좋다.

올해농사를 작전하면서 농장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락는이 많은 농장조건에 맞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바로 여기에 알곡증수의 비결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한 류대철, 김성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농장의 토양조건에 맞는 다수확우량품종을 선택한데 기초하여 심층시비기를 자체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물론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일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밀고나갔다.

농장일군들은 해당 단위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기술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군들은 현장에 찾아와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맞이하자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 우종설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심층시비기가 만들어지고 당면한 영농공정에 리용되게 되였다.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적극 타고들었다.

이 농장에서처럼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농사를 짓는데 힘을 넣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금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에 넘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양어를 근기있게 내민다
덕을 볼 때까지 축산과

—황해남도 게남목장에서—

—북창양어사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5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장춘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보통강구역 녀맹위원장 송양란, 락랑구역 승리1동 초급녀맹위원장 홍성숙, 대성구역 룡북동 녀맹원 우영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당을 령도하게 되심으로써 《ㄷ.ㄷ》에서 개척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철같은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신 장구한 력사적기간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동맹조직이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인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녀맹돌격대활동과 누에치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자녀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것을 혁명적가풍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녀성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체육관, 체육인숙소건설 적극 추진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체육관과 체육인숙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2만여㎡의 부지면적에 실내축구를 할수 있는 경기장과 관람석, 선수 및 감독대기실, 심판원실 등을 갖춘 체육관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체육관의 익측에는 체육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체육인숙소도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체육관과 체육인숙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력한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로력과 자재보장을 적극 따라세워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작전이 면밀히 세워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체육관과 체육인숙소를 자력자강의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건설에서 설계와 시공, 건재의 3대요소를 옳게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박영철, 김경무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전투현장들에 나가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선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심멀전, 립체전을 벌려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이미 체육관 외부총공사량의 85%를 해제낀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돌격전의 앞장에는 도도시건설려단이 서있다.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선구자들인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이 일터마다에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려단적인 사회주의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려단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전투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무대총막치기와 관람석측조작업을 빠른 기일안에 끝내고 전반적인 내부미장에 진입한 돌격대원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는 혁명적인 일본새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9대대, 8대대, 4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돌격대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앞선 공법들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체육관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내부망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목욕실, 사와실, 기계실공사와 화단조성과 주변정리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중앙과 도의 일군들이 체육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체육인숙소건설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도의 체육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체육인숙소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끝내고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흥

인민을 위한 일감을 스스로 찾아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한 보건일군과 나는 전화대화로 하여 우리는 휘재일정을 바꾸게 되였다. 그만큼 40여년간을 보건부문에서 일해온다는 그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평안북도산원원장 김화숙동무의 추억은 지난해 어머니날을 며칠 앞둔 어느날 아침부터 시작되였다.

퇴원하는 산모들과 마중온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바래주는 의료일군들로 하여 평안북도산원마당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바로 이때였다.

어려대의 승용차들이 경적소리를 울리며 산원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 지배인 리은철동무와 종업원들이였다.

산모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며 리은철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산원에서 퇴원하는 산모들에게는 관심을 미처 돌리지 못했습니다.》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오히려 미안해하는 지배인을 바라보며 산원의 의료일군들도 산모들도 미처 몰랐바를 말할 때 그는 계속했다.

《이제부터 산원에서 퇴원하는 산모들은 우리 사업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까지 태워다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처럼 우리 도의 산모들도 집에까지 승용차를 타고가란 말입니다.》

《그 성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매일이다싶이 퇴원하는 산모들에게 차를 보장해주겠습니까? 사업소일도 바쁠텐데.》

산원일군들이 만류하자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민을 위해서 우리 차사업소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서들 오르십시오.》

이렇게 되여 산모들을 태운 승용차들이 경적소리를 울리며 산원정문을 나서게 되였다.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산모들도, 그들을 바래주는 의료일군들도 뜨거운것을 삼켰다.

이때로부터 신의주시에서는 산모들을 태운 승용차행렬이 시내를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러나 도안의 산모들을 위해 승용차들이 달리게 된데까지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해 어느날이였다.

사업소로 향하던 지배인 리은철동무는 우연히 길가에서 녀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였다.

《…그 운전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만요. 글쎄 도산원에서 퇴원하는 산모를 위해 손님들에게 량해까지 구하며 그를 집에까지 태워다주지 않겠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만요.》

그 목소리에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왔는가를 심각히 돌이켜보며 사업소로 돌아온 리은철동무는 그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끝내 찾을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밤늦도록 사업소의 일군들과 마주앉아 토의했다.

우리 사업소는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소이다. 인민들이 교통상애로를 느끼는것은 우리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보건사업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인민을 위한 일감은 어디에나 있다. …

리은철동무의 이 말은 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여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에는 도산원에서 퇴원하는 산모들에게 차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직능》이 생겨나게 되였다.

매일 도산원과 사업소지령과의 전화통화시간이 사업일정에 정해지고 그 집행을 위한 기록부가 따로 마련되였다.

그 기록부에 며칠전에는 847번째 산모이름이 등록되였다.

거기에는 평범한 농장원도 있었고 비행사의 안해도 있었으며 교원도 있었다.

인민을 위한 일감을 또 하나 찾게 된 이들의 기쁨은 참말로 컸다. …

보건일군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지난 시기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을 위해 바쳐온 헌신의 자욱들이 눈에 선히 안겨왔다.

로선베스마다에 비상약함을 준비해가지고다니면서 먼거리운행중에 인민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주고있는 이야기며 지난번 겨울방학때 집으로 왔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이 등교시간이 늦어질가봐 안타까와하는것을 보고는 평양까지 차를 보장해준 이야기…

김화숙동무는 우리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우리 후대들을 위해 보건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빛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정어린 모습을 볼 때마다 보건일군으로서 인민을 위해 일을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가다듬군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이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들을 순결한 공민적자각과 량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할 때 내 조국은 더욱 굳건해지고 아름다와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민

멸사복무의 정신이 안아온 결실

신포시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몇해어간에 신포시가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는 세멘트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 인민들이 즐겨찾는 국수집과 온면원, 갖가지 색갈의 외장재를 바른 아담한 아빠트들…

이 모든것에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헌신하고있는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몇해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시당책임일군인 한만흥동무는 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본 후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격식없이 진행된 협의회에서 그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제기하였다.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하며 거리와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가 협의회에 제기한 일감은 방대했다.

일군들은 한순간 놀라와했다.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우려가 앞섰던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그 아름찬 일들을 꼐 해낼수 있겠는지, 사실 시의 실정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자고 해도 어려운것이 너무 많아 선뜻 달라붙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갓 임명된 시당책임일군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건이 어렵다고 움츠리기만 하면 언제 가도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없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의 사고관점에 있다.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생눈길을 걷는 심정으로 달라붙자.

시당책임일군의 말은 모임참가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세멘트는 이미 마련해놓았다는것,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 일군들을 만나보니 열의가 좋다는것, 자체의 힘으로 자기 공장, 자기 일터를 전변시키겠다고 욕욕한다는것 등을 알려주면서 책임일군은 모임참가자들이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가지게 하였다.

책임일군은 시안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불같이 헌신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모임을 끝마쳤다.

모임에서 내세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시당일군들이 섰다. 시당위원회 부서들이 중요대상들을 하나씩 맡았다.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온면원과 국수집개건을 맡은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시당일군들의 모범을 본받아 시인민위원회일군들도 종이공장과 세멘트공장의 기술개건을 위해 앞재를 메고 떨쳐나섰다.

시급기관 일군들모두가 한개 단위씩 맡고 공사를 다그쳤다. 낡은 건물들이 통째로 없어지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움씰움씰 솟아오르는것과 동시에 일군들의 낡은 사고관점은 뿌리채 뽑히기 시작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시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들이 단위들을 돌아보며 건설 및 기술개건추진정형을 알아보고 록화촬영을 하여 매주 진행되는 시급기관 일군들의 모임에서 보여주게 하였다.

그렇게 한주일동안의 실적을 대비적으로 보여주어 일군들을 분발시키자는 목적에서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일군들이 현장을 돌아보며 건설 및 기술개건추진정형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것은 일군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경쟁심은 곧 일군들의 일욕심으로 전환되였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니 창조와 혁신의 열풍으로 온 시가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시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현대화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이 활성화되여 인민들이 덕을 보고있으며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된 유치원과 학교, 국수집과 온면원, 공원들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시에서는 마다카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체로 많은 양식자재를 마련하여 섬조개를 비롯한 수산물생산도 잘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일군들이 당정책경사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의약품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현 찍음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범죄자들은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지난 6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대회참가자들에게 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와 더불어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을 통해 지금 온 세계는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매혹적인 위인상에 감동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보수언론들은 감히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시비하고 헐뜯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려대여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KBS》, 《MBN》, 《련합뉴스》를 비롯한 괴뢰보수언론들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대해 《체제유지용전시성행사》니 뭐니 하며 악담들을 퍼치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해나섰다.

특히 괴뢰공영방송인 《KBS》는 전문가떨거지들과 《탈북자》쓰레기들까지 내세워 《장마당세대》니, 《사상주입의 한계》니 하는 궤변들을 내돌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야말로 대결에 환장하여 인간적인것이란 찾아볼래야 볼수 없는 천하무뢰한들, 신성한 언론의 탈을 쓴 쓰레기들만이 지지를수 있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악행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감정이며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온 행로에서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제일로 뜨겁게 새겨진것은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분이라는것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소년단야영소,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육아원과 애육원들, 옥류아동병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도처에 솟아난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민들레학습장, 소나무학생가방,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꿈같은 야영생활을 비롯하여 지난 5년 남짓한 기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온정속에 마련된 귀중한 재부들과 사랑의 진설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특유의 후대사랑에 의해 우리 조국땅에 날마다 펼쳐지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에서 인류는 불세출의 대성인의 무변광대한 인정의 세계를 보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아이들의 밝고 탐찬 모습이야말로 조선의 진짜국력이며 창창한 미래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독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과 그 시녀노릇을 하는 보수매문가들만은 이러한 눈부신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며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고 먹칠을 하지 못해 안달복달하고있다.

이것은 어린이들까지 반공화국모략소동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발악하는 괴뢰보수패당과 보수매문가들의 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쓰레기매문가들은 백지장같이 하얗고 순진한 우리 어린이들을 《장마당세대》니 뭐니 하고 참을수 없이 모독한 죄악만으로도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되여있다.

우리는 괴뢰보수언론들과 기자나부랭이들에게 헌실을 터무니없이 외곡날조하며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댄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명백히 경고하였다.

특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자들은 이 세상 한끝이라도 따라가 끝까지 찾아내여 가장 무자비한 징벌을 내릴것이라는 우리의 립장은 단호하고 철저하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감히 헐뜯어댄 괴뢰보수언론기관들과 쓰레기매문가들, 그것을 조직하고 부추긴자들은 지금 이 시각부터 분분초초 항시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괴뢰보수언론들의 반공화국특대형도발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조작한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범죄자들은 살아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06(2017)년 6월 15일
평 양

이딸리아에 가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 출발

제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대표단이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진행되는 국제민주녀성련맹 제17차 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로씨야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장혁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로씨야의 쏘치에서 진행된 철도협조기구 제45차 상회의에 참가하고 15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승필 철도성 참모장과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허경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교장 김찬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6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7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장쾌한 쇠물폭포가 쏟아질 그날을 그리며

산소열법용광로건설전투에 떨쳐나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총포성은 들리지 않는다. 충천하는 화광과 불구름도 여기에 없다. 그러나 창조와 혁신에로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 건설장을 뒤덮은 붉은기의 바다, 밤을 모르는 용접불꽃은 승리의 명마루로 치달아오르는 돌격전의 함성이고 백병전의 섬광그대로이다.

북방의 철의 기지에 능력이 큰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투쟁의 날과 달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김철의 미더운 로동계급, 그들의 들끓는 투쟁과 생활의 일부를 아래에 전한다.

김철의 본때를 우리가 보여주자

콩크리트타입량 1 500여㎥, 공사기일은 9일!

이것은 지난 3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정대보수사업소가 맡아안은 산소열법용광로의 동체기초콩크리트치기과제항과 수행기간이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의 주타격대상을 맡아나선 사업소이지만 실지 사업소의 현존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아름찬 과제였다. 기존의 방식과 공법으로는 9일이 아니라 수십일이 걸려도 수행할수 없는 방대한 과업이였다. 그러나 당이 준 임무앞에서 그들이 심장으로 다진 각오는 무엇이였던가.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이 어떤 건설인가. 단순히 철을 더 증산하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제재장벽에 통구멍을 내고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한 치렬한 대결전이 아닌가.

사업소당일군인 강진동무의 이와 같은 호소는 전투원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다.

죽으나사나!

이런 각오밑에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창안도입하여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소적인 현상응모가 진행되던 어느날 설비조립직장 전투원들속에서 한성이 터져올랐다.

《찾았다!》

휘틀을 나사조임식으로 련속끌어올리는 미끄럼식공법, 참으로 혁신적인 공법이였다. 그날 사업소참모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야 어제날의 군인건설자들이 아닌니까. 제재요 뭐요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김철의 본때, 병사의 무쇠주먹맛이 어떤가를 알게 해야지요.》

군사복무시절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였던 때의 경험을 살려 미끄럼식공법을 착상해낸 리수철, 권오준동무를 비롯한 설비조립직장의 미더운 제대군인전투원들이 하는 말이였다.

새로운 공법의 도입으로 순간의 멈춤이나 드림도 없는 치렬한 격전의 순간순간이 흐르던 지난 4월 어느날 밤 여러장의 타입판이 전투장에 새로 나타났다.

《한번에 고작 120㎥씩밖에 해제끼지 못하니 이거야 어디 속이 근질거려서…》

가쁜숨을 내쉬는 속에 건축직장의 오태철, 최응철동무들이 육중한 타입판을 내려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김영일, 최제연동무들이 그에 수긍했다.

《정말 배짱이 맞누만. 타입장의 열곳에서 동시에 콩크리트치기를 벌리자구.》

휴식과 교대가 따로 없었다.

밤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가에는 별무리가 비껴흐르고 땅우에서는 눈부신 용접불꽃이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는 김철의 밤은 언제나 잠들줄 모른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수제장기둥기초콩크리트치기전투를 벌리던 지난 4월 어느날 밤이였다. 세멘트직장전투현장에서 콩크리트혼합기의 웅글은 동음을 짓누르며 이런 청높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맡은 임무를 수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어기에서 땀들 당이 준 과업을 앞당겨 끝낼 결사의 각오가 전투장에 차넘치는 속에 휘틀제작과 조립이 끝나기 바쁘게 콩크리트치기가 련속적으로 벌어져 타입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하여 송정대보수사업소에서는 전투장에 달려나온 강철2직장, 열간압연직장, 열간제품완성직장, 라르마그직장 종업원들과 함께 산소열법용광로 동체기초콩크리트치기를 9일이 아니라 단 128시간만에 해제낌으로써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의 돌과구를 열어제꼈다.

김철의 본때를 우리가 보여주자!

이런 불타는 지향을 안고 송정대보수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지금 이 시각도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밤을 모르는 사람들

기만 하니 동문 정말 안되겠소. 작업반의 후방사업은 뭐 쉬운줄 아오?》

《반장동지의 속심을 제가 모르는줄 압니까. 전투장으로 하루가 멀다하게 후방물자들이 도착하는데 제가 무슨 후방사업을 따로 할게 있습니까.》

머칠째 교대를 마치고도 현장을 뜨지 않는 안선향동무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고 작업반장 박동혁동무가 그럴듯한 《계책》을 꾸며냈지만 작업반의 이악생이인 처녀혁신자에게 어찌 그것이 통할수 있으랴.

짐짓 표로통한 기색을 지은채 무섭게 다그쳐대는 처녀의 삼질에 한쪽편으로 물러선 작업반장의 얼굴에는 그만 얼적은 웃음이 비꼈다.

이들뿐이 아니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철근가공전투현장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각이한 길이와 두께를 가진 철근가공량은 무려 수십t, 사업소가 가지고있는 절단기며 인장기를 비롯한 철근가공설비로는 어림도 없는 량이다.

그러나 철근가공속도이자 콩크리트치기속도라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건재직장 전투원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전투원들 누구나가 묵직한 함마를 틀어쥐고 철근가공전투에 떨쳐나섰다. 콩크리트치기공사가 벌어지는 전투장 그 어디서나 철근, 철근 하는 때인지라 언제 절단기만 바라볼수 없는것이다.

《인장기만 다루면서 두 어깨가 근질거리더니 이제야 뭘 좀 일하는 맛이 나는구만.》

《하나둘-영차!》

누군가의 우스개소리와 함께 그에 화답하는 힘찬 떡임소리…

지난 5월 2일 새벽 수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발전기실기초콩크리트치기전투장에 들어섰다. 주택건설사업소 종업원들이였다.

놀라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업소일군들에게 건축직장 최영철동무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제야 우리들의 명절이 아니였습니까. 온 하루 체육경기로 들끓었는데 그 기세로 냅다 달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주택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온 작업장이 들썩하게 직장별콩크리트치기경기를 벌렸다. 마치도 전날에 미처 승부를 가르지 못했던 체육경기의 봉창이나 하듯…

밤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은 비단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 참가한 주택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온 김철 아니 철의 도시 전체가 당과 조국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섰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은 어제날의 용해공으로부터 나어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낮에 밤을 이어 전투장을 찾고있다. 전투원들의 일손을 도와 콩크리트혼합물을 한삽이라도 더 뜨고 그들에게 더운 차 한고뿌라도 더 권하기 전에는 전투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들.

김철은 이렇게 끓고있다. 나라의 대규모철생산기지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기어이 산소열법용광로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일떠세워 주체철의 장쾌한 쇠물폭포를 쏟아내고야말 불타는 지향과 열의에 떠받들려.

본사기자 리남호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수십일

지난해 3월초,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외과로 의식을 잃은 어린애를 업은 한 녀성이 찾아왔다.

어린이의 이름은 최소향, 아직 3살도 채 안된 그 어린이는 뜻밖의 일로 화상을 입고 벌써 며칠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었다. 전신 65%에 그것도 대부분이 3도화상이였던것이다. 소아외과가 생겨 이처럼 면적이 넓고 심도가 깊은 화상환자는 처음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기존리론에 따른다면 이런 최중증환자의 소생은 거의나 불가능하였다.

과장 라혁, 의사 유대호동무들과 간호장 윤은경, 간호원 박옥련, 박모란동무들로 치료조가 조직되고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그날부터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정성의 미담들이 날에날마다 꽃피였다. 당세포위원장 배영기, 간호원 현윤경동무들이 서슴없이 자기의 피를 바쳤는가 하면 윤은경, 박옥련동무들은 밤을 새워 환자를 간호하고도 다음날에는 환자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수 있도록 침대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담당의사 유대호동무는 가정사정도 뒤로 미루며 한순간도 환자의 곁을 뜨지 않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나갔다.

피부이식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강화장 함영환동무를 비롯한 소아외과의 의료일군들은 여러차례의 토의끝에 우리식의 새로운 알갱이자가피부이식수술방법을 대담하게 환자치료에 도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사실 이미 여러해동안 알갱이자가피부이식수술방법을 환자치료에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최소향어린이처럼 그렇게 화상면적이 넓고 심도가 깊은 환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앞에 책임진 보건일군이라는 자각이 그들을 그처럼 어렵고 힘든 길에 웃으며 들어설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충분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끝에 피부이식수술은 조용히, 그러나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함영환, 라혁, 유대호동무들은 물론 간호원 현윤경, 마취의사 김찬동무의 옷도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이렇듯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체질화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의 뜨겁고도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소향어린이는 병원에 입원한지 70여일만에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게 되였다.

정영철

혁신자집단의 남다른 긍지

사리원편직공장 양말작업반원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속에 년간계획완수자들이 속속 배출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사리원편직공장 종업원들속에서도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공장일군은 대번에 《그렇다면 양말작업반으로 갑시다.》 하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줄맞춰 늘어선 기대들의 동음이 귀맛좋게 울리는 양말작업반에서는 전투가 한창이였다. 끊어진 실을 찾아 제빨리 잇고 부러진 양말기의 바늘을 교체하며 마음속긴장을 늦추어볼새 없이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그들속에는 단발머리처녀도 있었고 나이지숙한 녀성도 있었다.

우리와 만난 수리공 김철호동무는 제대군인이였다. 녀성종업원이 대부분인 편직공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사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광의 일터를 빛내이고싶었습니다.》

한생을 바쳐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가리!

이것은 이곳 작업반원들이 한결같이 간직한 삶의 지향이다.

양말작업반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사적기대가 있다.

주체57(1968)년 5월 15일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작업반에도 들리시여 아동양말을 짜는 기대공의 모습도 오래도록 보아주시였다. 작업반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보아주신 그날의 양말기를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새것처럼 관리하고있다. 하루일의 첫시작도, 작업반생산총화도 언제나 절세위인들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기대앞에서 진행하군 한다.

지난 4월에도 이 사적기대앞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작업반궐기모임이 진행되였다.

작업반의 혁신자들속에는 기대공 리영금동무도 있다.

그는 수술한 상처자리가 도저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였다. 그러나 저마다 집으로 떠미는 작업반원들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작업반원모두가 만리마기수로 될 때 저만 락오자가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업반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어느날 작업반장 김순희동무에게 오랜 기대공인 전영애동무가 찾아왔다.

《저를 신입기대공 차광숙동무와 한교대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끊어진 실을 잇는 그의 동작이 아직 서투른데 제가 곁에서 배워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작업반장의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붉은 태양절을 맞으며 공장에서 제일먼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많은 혁신자, 천고개를 훨씬 넘긴 나이에 다른 기대공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맡아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쳐하는것만도 힘에 부칠텐데 신입기대공을 위해 마음을 쓰는것이다.

전영애동무만이 아니였다. 작업반의 전체 성원들이 만리마시대의 선구자로 살 불타는 각오를 안고 양말바늘이 떨어지면 하루밤사이에 면길을 달려가 구해오고 기대가 고장으로 동음을 멈추면 그달음으로 기계공장에 달려가 필요한 부속품을 깎아오며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5월말까지 앞당겨 수행하였다. 아직은 부족한것도 많고 막아나서는 난관도 많다.

그러나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이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이들이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은 수령의 유훈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관철을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였다.

본사기자 리건일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적음

전투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흐른다

철도성 평양객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5월말 어느날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철도성 평양객차대에서 있은 일이다. 하루 과제를 넘쳐 수행한 기쁨속에 퇴근길에 올랐던 평양객차대 수리중대 전투원들이 긴급전투령령을 받고 차고에 들어선것은 저녁 9시. 그때부터 대차소대원들은 몇시간 후면 당장 떠나보내야 할 객차수리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이 객차수리과제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였을무렵 생각지 못했던 정황이 조성되였다. 차체밑쉬보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용접봉이 바닥났던것이다.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그 많은 량의 용접봉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모두가 안타까와하고있을 때였다. 《동무들-》 하는 웨침과 함께 한 사람이 전투현장에 들어섰다. 가쁜숨을 내쉬며 전투원들앞에 묵직한 배낭을 내려놓는 사람은 대차소대 수리공 김철영동무였다.

《엊저녁 동무들의 집에 전화를 했더니 모두 퇴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긴급전투령령이 내린줄 짐작했습니다. 자, 용접봉입니다. 전번 전투때생각을 하니 용접봉이 꼭 모자랄것 같아…》

김철영동무의 얼굴에 비오듯 하는 땀방울, 소대장 리천성동무는 묻지 않고도 그가 용접봉을 마련하기 위해 온밤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음을 알수 있었다. 소대장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김철영동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사람두 참, 치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작업현장에 다시 눈부신 용접불꽃이 날리고 얼마후 전투과제를 끝낸 소대원들이 미래과학자거리에 나섰을 때였다. 새날을 알리는 평양역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다.

《전투야 이런 멋에 하는거지, 안그렇소? 동무들!》

소대장의 절절한 목소리와 함께 새벽하늘가에 울려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수송전사,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안고 날에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사람들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강혁철, 남영림, 김동일, 로은하동무를 비롯한 승무3중대의 전투원들은 객차대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52 11호객차를 스스로 맡아 20여일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철도성적인 본보기객차로 일신시켰다. 얼마전 려행길에서 급병을 만난 한 손님을 위해 이튿밤을 꼬박 밝혀가며 정성을 다한 조은숙동무와 언제나 손님들로부터 친절한 렬차원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송옥연, 조경미동무를 비롯한 렬차원들의 높은 봉사성과 아름다운 소행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기업소의 면모에 있어서나 전투력에 있어서 철도성적인 본보기집단으로 자랑떨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두줄기 궤도우에는 려행자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는것이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흥시 흥덕구역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입니다. 이렇게 펜을 든것은 저를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소개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저는 수술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의 사선생님들로부터 뜻밖의 사연을 알게 되였습니다. 글쎄 구역당책임일군이 몸보신에 좋은 보약재와 진강식품들을 가지고 찾아와 수술림회를 서고 수술이 잘된것을 확인하고서야 병원문을 나섰다는것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친부모의 심정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늘 관심해주고 보살펴주는 구역당책임일군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있습니다. 제가 새 집을 받았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가정용품들을 마련해주었고 때없이 집을 찾아와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고있습니다.

흥덕구역 은덕산업병원 의사 주효철선생님도 저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있습니다. 제가 특류영예군인으로 제대되여온 때부터 스스로 담당의사가 되여 수년세월 바쳐온 그의 혈육의 정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데리고 중앙병원에도 찾아가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건강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으며 맨갑이 떨어질세라 마련해주군 하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저에게 오랜 세월 변함없이 친혈육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흥시 흥덕구역 흥덕4동 32인민반 위명용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고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적음

인민사랑의 향기 넘치는 일터

류경김치공장을 돌아보고

지금 인민들속에서는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도시주민들에게 공급하면 남새의 랭비를 없앨수 있을뿐아니라 그맛이 맛있고 신선한 김치를 정상적으로 먹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현지지도 1돐을 맞으며 민족음식발전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류경김치공장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김치의 맛

과연 어떤 비방이 있을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안고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갖가지 김치와 짝두기, 장절임들이 쏟아져나오는 생산현장으로 향하였다.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조종되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생산현장은 정말 희한하였다.

승강기와 수직콘베아를 통하여 지하에서 끌어올린 배추들이 반절기에서 정확히 들로 절단되여 다음공정에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절임과 세척, 물써우기 등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광경은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양념을 넣은 포기들이 제품명, 제조날자와 시간, 담당자이름이 기입된 명찰표가 붙은 용기들에 들어간 후 발효와 숙성과정을 거쳐 맛있는 김치로 된다고 하면서 동행한 공장일군은 말하였다.

《원료입고, 배추절단, 절임, 세척, 양념넣기, 발효, 숙성 등 모든 생산공정에서 김치의 독특한 맛을 최대로 낼수 있는 기술지표를 철저히 준수할뿐아니라 제품의 출하단계에서도 품질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고있습니다.》

최상의 질보장!

맛좋은 김치생산의 첫 비방은 바로 고도로 과학화, 표준화된 품질관리에 있었다.

기술준비원 김진학동무는 인공적으로 제조한 여러가지 젖산균을 제품에 동시에 주입하는것도 김치의 맛을 돋구는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김치가공방법들을 리용하여 독특한 맛을 살리고있었다.

결국 공장에서는 김치생산과 가공방법의 공업화, 과학화와 표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하고 맛좋은 김치를 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것이다.

년간 수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에서는 현재 어린이영양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풍나물김치, 오이소박이김치를 비롯한 특색있는 제품들과 통배추김치를 포함하여 10여종의 맛있고 영양가높은 김치, 짝두기, 장절임, 버섯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애국충정의 마음 어린 민족음식

공장을 돌아보면서 찬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지배인 백미혜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6월 9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꾸리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를 집들에서 담그어 먹는것보다 더 맛있게 만듦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김치,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되게 함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은 곧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였다.

공장을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단위로 전변시키고 가장 훌륭한 맛을 가진 김치를 생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류경김치공장을 세계가 알게 하자.

온 공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투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공장종업원모두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고 련관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고도로 자동화, 로보트화된 설비들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공장에서는 개작공사를 다그치는 한편 독특한 맛을 가진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려나갔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료보장이였다.

원자재의 품질도 김치의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로부터 공장일군들은 김치의 훌륭한 맛과 냄새, 색갈을 낼수 있는 남새와 양념원자재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고 해당 부문과 전국각지의 인민들도 당의 인민사랑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한 류경김치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며 질좋은 원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내주었다.

이 나날 전선에서 보내온 지원물자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펼쳐졌다.

지난해 200일전투의 최전방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온 나라 천만군민이 물심량면으로 원호하던 시기 이 공장으로는 함경북도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많은 량의 원료용마른고추가 들어왔다.

비록 뜻밖의 자연재해로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으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신들이 맡고있는 원료보장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애국충정의 마음이 전선에서 지원물자를 보내오게 한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금지의 김치생산기지는 용암보다 더 뜨거운 결사관철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공장로동계급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애국충정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더욱 분발해나섰다.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공장개작공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였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훌륭하게 꾸려진 생산공정에서 첫 시험생산을 진행한데 이어 맛있고 영양가높은 김치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올해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현지지도 1돐이 되는 지난 6월 9일을 온 공장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게 보냈다고 하면서 지배인 백미혜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영양가높은 김치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김치향기가 차넘치게 함으로써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겠습니다.》

명춘길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

유엔이 자기의 력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였다. 바로 얼마전에 우리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쳐올린 승전의 성에 기절초풍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이다.

별로 놀라운것도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번 대조선《제재결의》라는것이 미국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종사하는 꼭두각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마당으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것이기때문이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우리가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할 때마다 리무니없이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제재결의》니, 《성명》이니 하는것들을 람발하여왔다. 미국이 우리가 지난 5월에 진행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도 그 련속이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핵무력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질식시킬것을 노린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라는데 있다.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시비하였는데 그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는 미국의 가증되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박소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로서 절대로 문제시될것이 없다. 그 어느 국제법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중국과 쉬뚤방에서 《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꾸며내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총의》로 포장하여 내리먹이는 강권과 전횡을 부리였다.

사실 그들의 론거대로 우리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하여 로케트를 발사한 모든 나라들 특히 미국부터 제재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 세계에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제일많이 한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기때문이다. 저들은 핵무기현대화를 비롯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도 다른 나라는 그 어떤 시험도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리에 대한 《제재결의》는 애당초 잘못된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제면도 궤뚜리고 주대없이 놀아대는 이중이떠중이들이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비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적대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전면배격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덧붙여놓고말해서 이번 대조선《제재결의》라는것은 체질적이며 병적인 반공화국적대감에 죽 빠지있는 미국과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것들이 주동이 되여 날조한것이여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지금도 그들이 우리의 핵 및 로케트계획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로 우리의 목을 조이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라는 황당한 여론을 내돌리며 유엔성원국들에 그것을 리행하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허황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명백히 말해주지 않을수 없다.

그 어떤 제재압박소동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압박소동은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한 미국은 장장 수십년동안 그 규모나 기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매달려왔다. 남들이 다 하는것도 우리가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법석 떠들며 각종 악법을 만들어내고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강도높은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날조해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총폭발시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날에날마다 세계를 놀래우는 세기적인 핵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왔다. 우리를 고립압살, 질식시켜보려는 미국의 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자력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사회주의와 자주의 성새로 우뚝 솟아 그 위용을 만방에 당당히 떨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비약이 일어나는 천지개벽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졌다. 우리에게는 두려운것이 없다. 그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한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악을 쓰며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상상할수 없는 비악적인 속도로 날로 강화발전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전전긍긍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결의》로 우리 핵무력의 눈부신 발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거나 막아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꿈이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자강력과 불패의 군사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리 학 남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는 망동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막강한 위력앞에서 적대세력들이 몰본 미친개마냥 놀아대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련이은 로케트시험발사를 《위협》으로 몰아붙이고 제재와 압박을 떠들자 그 졸개들도 영무새처럼 그것을 되받아 넘기고있다.

우리가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련속 쏟아내는 망언들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일본방위상 이나다가 또다시 궤쳐댄 망발만 봐도 그렇다. 이나다는 우리의 핵 및 로케트개발성과를 두고 조선이 지역과 세계에 가하는 《위협》이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느니, 모든 선택안이 락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있는 미국의 자세를 지지한다느니, 단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완전하고도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리행을 통한 대조선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역시 이데리카제국의 총전만이 내댈수 있는 악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이것을 순수 상전을 섬기는 삼살개의 맹목적인 추종에서 나온 소리라고만 봐야 하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로케트시험발사들에 《위협》과 《도발》딱지를 붙이고 《국제사회의 압력강화》를 고취하는데는 섬나라족속들의 교활하고도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그것은 군국화에 대한 국내외의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무마시키고 무력증강과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리화할수 있는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아시아제침야망실현에 기어이 나서겠다는것이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고 전국을 파쑈화하려는 우익세력의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현 집권세력이 들어앉은 때부터 일본의 군국화는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

군비를 확장하고 미싸일개발과 항공모함형함선건조, 다목적스텔스전투기구입에 열을 올리면서 미해병대와 류사한 무력을 갖추려 하고있는것, 미국, 남조선과 정보공유합의서를 체결하여 군사정탐활동을 로골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있는것 등은 그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일본의 군국화가 침략과 전쟁에 미쳐날뛰던 옛 《제국》의 부활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일본의 군국화움직임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의 더러운 침략적본색은 드러났다. 어느 한 외신은 최근 일본이 주변정세의 긴장상태를 리용하여 국내에서 《무력사용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안보를 강화하는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수정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평하였다.

사실상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재침을 위한 법적, 정신적, 군사적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왔다.

종래의 《전수방위》전략을 선제공격전략으로 바꾸었다. 야스구니진쟈참배를 정례화하고 전범자들을 찬양하는 영화, 소설과 같은 작품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사회에 류포시키면서 군국주의선전에 광기를 부리고있다. 《비핵3원칙》은 아예 내던지고 수천t에 달하는 핵물질을 저장해놓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류형의 로케트들을 개발, 장비하고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이런 일본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로케트시험발사를 《위협》으로 걸고드는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짓이다.

구태여 우리의 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진행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오늘 로케트발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예상사로 진행되고있다. 일본이 우리의 로케트시험발사가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친다고 고아대는 때에도 일부 나라들에서 여러차례나 미싸일을 발사하였지만 단 한번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남들이 다 하는것도 우리가 하면 《위협》과 《도발》로 된다고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일본은 허장성세하는 미국을 믿고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고있는 우리의 핵무력앞에서 일본이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도 공포에 떨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반동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위협》을 떠벌이며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계속 일삼는다면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각계층 민심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6.15공동선언발표 17돐을 맞으며 진행하기로 하였던 북과 남, 해외의 민족공동행사가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로 하여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보수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북남관계의 파국적후과를 청산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될 6.15민족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민족공동행사에 어떻게 림하는가 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현 집권당국의 립장을 가늠해볼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처음부터 《한미정상회담전 6.15공동행사개최는 부담스럽다.》느니, 《국제제재의 틀속에서 검토하겠다.》느니 하는 등으로 시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여기에 손발을 잡그려 하지 않았다.

지어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북침핵전쟁도발광기에 대처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시시콜콜 걸고들면서 민족공동행사개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보수패거리들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도발》이니, 《고립》이니, 《제재와 압박을 통한 단호한 대응》이니 하는 대결망발들이 현 당국자들의 입에서 거리낌없이 튀여나왔다.

이것이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시대와 같은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열어놓기 위한 민족공동행사개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반통일적범죄행위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 17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북측이 거절하였기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였다.》느니, 《북측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문과 관련한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느니 하고 구차스럽게 변명하다 못해 《정부는 할수 있는것은 다하였다. 문제는 북때문이였다.》는 당치않은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다.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이제 와서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 누구의 《책임》이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넉두리를 늘어놓는가 하는것이다.

집권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는 남조선당국이 벌써부터 《할수 있는것은 다하였다.》는 잠꼬대같은 궤변을 늘어놓는것은 더욱 가관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 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그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여론을 오도한 박근혜패쇄보수패당의 추악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층이 《6.15공동행사보장에 대한 명백한 립장을 내놓지 않고서도 할 소리가 있는가.》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주대없이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만 살피는 가련한 처지에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는 남조선당국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외세의존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민족분렬사의 가장 뼈저린 교훈이다.

명백히 하건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정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의 결정체이다.

이전 민주개혁《정권》들이 미국의 승인이나 보수세력의 동의를 받아서 북남선언들을 채택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남선언리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민간교류나 허용해준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이 아니다.

현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정권》, 초불민심을 대변하려는 《정권》인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집권전기간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내외의 비난과 저주만을 받은 보수《정권》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각계층 민심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남조선당국이 선차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며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죄악을 단호히 심판할 용단부터 내리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저들의 립장과 태도를 온 민족이 주시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체106(2017)년 6월 15일
평 양

로씨야 미국선거구들에 대한 싸이버공격설을 배격

•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싼크뜨-뻬쩨르부르그국제경제연단에서 로씨야를 헐뜯는 미국의 목적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로씨야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여론을 집요하게 퍼뜨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패단들에 대한 주의를 대외무대에 옮겨놓으려는 비렬한 시도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로씨야에 대한 황당무계한 비난으로 정치적곤경에서 벗어나보려는 시도를 걷어치울것을 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 정부는 로씨야가 미국선거구들을 대상으로 싸이버공격을 하였다는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것을 론증되지 않은 무근거한것으로 간주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우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주장외에 그 어떤 다른 정보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어떤 론거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었을수 있다는것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부 대중보도수단들의 해당 보도들이 기초로 삼았다는 미국특수기관들의 보고서자체도 읽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정보통신기술발전 노력

나미비아가 정보통신기술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9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추동력으로 삼고 나라의 경제적발전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국가정보통신기술회의를 계기로 콤퓨터망을 통한 정무활동과 교육, 보건, 광업 등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며 여기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한다.

제조업부문생산 증대

말레이시아에서 4월에 제조업부문의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 증대되였다.

9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공업지구건설 계획

에티오피아가 새로운 공업지구건설을 계획하고있다.

바히르다르에 건설되는 이 공업지구는 면적이 75ha에 달하며 여기에는 8개의 공장건물과 하부구조시설이 건설되게 된다.

공업지구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품으로 완성하게 되며 2만개이상의 일자리가 조성될것이라 한다.

【조선중앙통신】

나이제리아에서 원유채취

반테로투쟁을 강화해나갈 의지

— 이란무력 총지휘참모장이 최근 테헤란에서 동시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반테로투쟁을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있는 테로분자들이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력사는 누구도 강권과 테로, 폭력으로 지역에서의 이슬람교혁명의 영향력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무모한 테로행위들이 지난 40여년간 미국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국가테로의 피해를 받아온 이란의 위력을 약화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이란무장력은 테로분자들과 그 후원자들에게 쓰디쓴 교훈을 안겨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란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9일 이 나라 정보성이 밝힌데 의하면 안전무력이 최근 테헤란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국제테로조직과 련결된 41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서북부지역에서 테로분자들의 은신처들을 찾아내여 다량의 탄약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 알제리군대가 11일 쏜스딴틴도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6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통전기재를 압수하였다.

이에 앞서 9일 케니아경찰은 나이로비에서 테로공격을 단행하려던 6명의 범죄자를 사로잡았다.

— 레바논안전군이 9일 전국적범위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렸다. 결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 성원 7명이 체포되였다.

이자들은 레바논에서 폭탄테로, 암살 등 불순한 음모를 꾸미고있었다 한다.

사회적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색갈혁명》

최근 캄보자정세가 날로 복잡해지고있다.

《검은 월요일시위》라는것을 벌려놓은 캄보자의 반정부세력들은 정부의 《인권유린행위》를 운운하면서 도처에서 란동을 부리는가 하면 사람들을 반정부시위에로 부추기고있다. 이로 하여 정부와 반정부세력사이의 긴장상태는 갈수록 표면화되고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캄보자정부가 군대에 잠재적인 정부전복시도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요구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적극적인 치안유지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문제는 불안정하게 번져가고있는 캄보자정세의 리면에 외부세력의 검은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는것이다.

얼마전에 캄보자인민당소속 국회의원 대변인이 자기 나라에서의 반정부시위를 막후조종하고있는 주범을 폭로하였다.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배후에서 반정부세력들을 사촉하고 지원해주는 상투적인 수법에 매달리며 캄보자에서 정부전복을 꾀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캄보자에서 《색갈혁명》을 기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미국은 이에 대해 아닌보살하고있다. 캄보자의 주장이 상상에 불과한 무근거한것이라고 우겨댔는가 하면 캄보자주재 미국대사관 관리들을 내세워 저들이 캄보자정당들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느니, 캄보자의 민주주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해댔다. 언제 한번 저들의 비렬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인정한적이 없는 지나온 행적을 놓고볼 때 미국이 놀고있는 서툰 연극은 결코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캄보자에서뿐만이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습격, 파괴, 략탈행위를 통반한 반정부시위들이 일어나고있는것도 전적으로 《색갈혁명》에 의한 현 베네수엘라정부전복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음모적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은 반베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마두로대통령의 사임과 조기선거를 요구하여 폭력적인 시위들을 련일 벌리도록 반정부세력들을 뒤에서 밀어주고있다. 혁명의 전취물과 정권수호를 위한 베네수엘라정부의 정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악랄한 비방중상을 일삼다 못해 추종세력들까지 내세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쿠데타를 선동하는 콤퓨니케까지 발표하도록 하고있다.

올해 2월 콜도바대통령이 자기 나라 수도에서 미국의 지지하에 우크라이나각본에 따른 《색갈혁명》이 준비되고있었다고 까밝힌것을 비롯하여 현시기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미국의 조종하에 《색갈혁명》에 의한 정부전복음모들이 추진되고있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와 움직임들은 미국이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실현을 위하여 《색갈혁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강요하는 《색갈혁명》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반정부시위나 소요의 조장, 적화를 통하여 내부와해,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해당 나라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립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실상 《색갈혁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미국이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수도 쁘라하에서 반혁명적폭동을 사촉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미국은 서방언론들이 《쁘라하의 봄》이라고 떠드는 이 폭동에 그의 반동적성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비로도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음으로써 저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미화분식하려 하였다. 그후 미국이 《반테로전》을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제무대에서는 이와 같은 피이한 《혁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미국의 비호조장밑에 일어난 《오렌지혁명》, 《장미혁명》 등 형형색색의 《색갈혁명》들에 의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나중에는 합법적인 정권들이 전복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11년에 있은 《아랍의 봄》의 후과는 그야말로 파국적이였다. 중동의 일부 나라들에서 거의 일시에 정권들이 교체된 후 종족간, 교파간에 류혈적인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세계적인 피난민대란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불안정을 악용하여 지역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과 군사적위협, 무기판매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본 미국은 현재 《색갈혁명》의 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있다. 그래야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는 자체의 무력사용을 피하면서도 침략적인 정치경제적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미집권층의 음흉한 타산이다.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 나라 정부들이 《색갈혁명》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례외없이 이 나라들에 대하여 날조와 파장, 외곡으로 일관된 《인권공세》를 들이대는것으로부터 《색갈혁명》의 전주곡을 울리고있다. 인권문제를 걸고 반정부세력들을 정부전복에로 충동질하는것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해당 나라 정부를 《악마》로 표사함으로써 저들이 앞으로 일으키려는 《색갈혁명》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투쟁》으로 꾸미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위험천만한 《색갈혁명》전략에 각성을 높이고있다. 지난 5월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 서기장은 어느 한 신문과의 회견시 자기 나라에서 《색갈혁명》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시도를 배격하였다. 그는 서방이 로씨야에서의 《색갈혁명》실현계획을 포기하지 않고있으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하지만 로씨야의 법보호기관들과 특수기관들은 도발과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저지시키는데서 이미 커다란 경험을 축적하였다, 로씨야에서의 《색갈혁명》시도는 전망이 없다고 야유하였다. 이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교활하고도 파렴치한 정부전복책동에 대한 비난과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미국은 앞으로도 주권국가를 겨냥한 내정간섭책동, 《색갈혁명》에 더욱 끈질기게 매달릴것이다. 력사적사실들은 이에 한걸음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만이 초래된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내에서 미국이 꾀하고있는 《색갈혁명》시도에 경종을 울리며 이를 단호히 배격, 분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안 철 권

과학기술소식

새로운 지능마스크 개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험성이 날로 커가고있는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서 새로운 지능마스크를 개발하였다.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는 투명하기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알아볼수 있다.

기존마스크는 얼굴 절반을 가리우기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알아볼수 없으며 한번밖에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지능마스크는 재리용할수 있을뿐아니라 대기오염상태를 기록 및 분석하는 장치도 설치되여있다.

마스크는 크기가 작은 수자식활영기정도이며 무게는 0.44kg정도이다.

새로운 마스크에는 외부의 공기를 려과하는 거르개가 설치되여있어 사용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다. 이 거르개는 40시간이 지나서 교체하게 되여있다.

따라서 하루에 한번 교체하는 기존마스크보다 훨씬 편리하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되여있지만 내부에 공기순환장치가 있기때문에 불쾌한 냄새나 습기가 차는것을 방지한다.

대리칼굵기의 5 000분의 1밖에 안되는 반도체 제조

로씨야의 대학연구사들이 초미세박막을 제조할수 있는 설비를 리용하여 기상유기분자로부터 사람머리칼굵기의 5 000분의 1밖에 안되는 반도체를 만들어냈다.

이 새형의 반도체는 분자나노전자장치를 제조하는데 리용할수 있으며 새 기술을 리용하여 유기반도체를 생산하는데 300-400℃의 온도만 보장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 분자들을 매우 정교하게 련결시키는 동시에 기술장치의 수명을 현저하게 늘일수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방법은 에네르기소모량을 훨씬 줄이고 처리속도도 몇배로 높일수 있게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9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